

# ‘연극사랑-관객사랑’ 광주연극제 관객맞이

### 18~23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기도’ ‘제비집’ 등 6개 작품 무대 최우수작 대한민국연극제 출전

지역 극단들이 다양한 작품으로 경연을 벌이는 제36회 광주연극제가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원광연)가 주최하는 이번 연극제의 주제는 ‘연극사랑-관객사랑’이며 극단 ‘시인’과 ‘진달래피네’, ‘일·아리’, ‘좋은친구들’, ‘비람꽃’, ‘사람사이’가 준비한 6개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 작품중 최우수작품상에 선정된 작품은 오는 7월15일~8월1일 경남 밀양에서 열리는 제40회 대한민국연극제 광주대표 작품으로 출전하게 된다.

극단 시인의 ‘기도’(작 장원, 연출 김민호·장원)가 18일 제일 먼저 관객과 만난다. 여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루는 작품은 유력 용의자로 체포된 아들 성현과 4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며 자수한 그의 어머니 신형의 이야기다. 배우 김영택·박경단·김현주·최이노 등이 출연한다.

19일 펼쳐지는 진달래피네의 연극 ‘순애의 순정’, 없다(작·연출 최영화)는 신작극 ‘이수일과 심순애’를 현실적 관점에서 풀어낸 작품이다. 지방대 다니는 이수일이 하버드 MBA 출신의 김중배에게 애인 심순애를 빼앗기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리며, 배우 배창희·최현진·이승학·임선아·김하늘 등이 관객과 만난다.

극단 일·아리의 작품 ‘울지말아요, 스노우맨



제36회 광주연극제가 18일부터 23일까지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다. 극단 사람사이의 연습 장면.

(작·연출 김경숙)은 20일 무대에 오른다. 작품은 어느날 어릴 적 살던 동네를 방문한 한 남자가 자신을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할머니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음악이라는 꿈을 포기한 제이와 부하직원의 실수를 덮어쓰고 회사에서 퇴직한 부장의 이야기기를 담고 있다. 고남영·김정훈·박영훈·김호준·정유정 등이 배우로 출연한다.

극단 좋은친구들의 연극 ‘별을 위하여’(작·연출 배서현)는 21일 열린다. 남편과 이혼한 뒤, 중증 발달장애인인 딸 혜성을 홀로 키우고 있는 수희가 주인공으로 어느덧 성장한 딸의 모습을 보고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그린다. 정경아·김한빈·이지은·김정규가 연기를 펼친다.

22일에는 문화예술공방 비람꽃의 연극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널 지켜줄거야 친구야’(작 오세혁, 연출 최영규)를 볼 수 있다. 한 마을에

서 나고 자란 절친 민석과 천석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일제 강점기 친구들의 갈등, 지주와 소작인의 사이의 갈등, 해방직후 좌·우 이념 갈등 등을 이야기한다. 배우 이종규·김예성·한종신·이영환 등이 무대에 오른다.

마지막 23일 공연되는 극단 사람사이의 연극 ‘제비집’(작 원광연, 연출 송정우)은 80세의 장성덕과 환갑의 며느리 영숙이며, 35세 노처녀 영숙이 등 삼대가 살고 있는 최씨 집안에 수년 만에 제비가 찾아오면서 일어나는 일이 담겼다. 삶과 죽음,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작품으로 배우 유지영·윤미란·최현정·박규상·신해은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523-729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무야호 8-경 제35회 광주연극제 최우수작품상 ‘만선’

## ACC 재단 ‘거인 양갈로’·‘하티와 광대들’·‘그 물’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우수 공연 프로그램 선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보유한 공연 작품 3편이 ‘2022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국공립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먼저 어린이 음악극 ‘거인 양갈로’는 세종국악당, 부평아트센터, 고흥종합문화회관, 보령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오른다. 어린이 연극 ‘하티와 광대들’은 통영시민문화회관과 대구남구대덕문화전당, 판소리 ‘그 물(The Water)’은 하동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음악극인 ‘거인 양갈로’는 ACC 창작자 어린이 공연 개발로 창작곡악그룹 ‘그림’이 함께 제작했다. 필리핀 민담 ‘바다는 왜 짜졌을까’라는 이야기에 우리나라 전래동화 ‘소금을 내는 맷돌’을 결합

해 우정, 배려, 공존에 대한 주제를 담았다.

어린이 연극 ‘하티와 광대들’은 ACC 어린이극장 활성화 사업으로 극단 토박이와 함께 제작한 작품이다. 고대 인도설화인 ‘생명열매, 죽음열매’를 소재로 희생과 생명, 죽음 등 삶의 근원적인 질문을 찾아가는 내용이다. 인형과 가면 등 다양한 물체로 표현했으며 인도풍 음악과 의상으로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판소리 ‘그 물(The Water)’은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의 제작 시리즈 판(PAN)을 통해 2021년 초연됐다. 소리꾼 정은혜가 전통 판소리의 인물과 스토리를 무대에서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으로 판소리 ‘춘향가’, ‘흥보가’, ‘수궁가’, ‘심청가’, ‘적벽가’의 다섯 바탕 판소리를 촘촘히 엮어 ‘물



어린이 음악극 ‘거인 양갈로’

에 관한 서사를 중점적으로 표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국립남도국악원, 브랜드 공연 ‘결생전’ 음반 발매

‘바람과 파도가 기록한 인생고락의 노래.’ 국립남도국악원이 브랜드 작품 ‘결생전(乞生傳)’을 음반(사진)으로 만들어 최근 발매했다.

‘결생전’은 2020~2021년에 걸쳐 국립남도국악원이 제작한 악·가 무 종합극이다. 진도 장례놀이 ‘다시래기’와 함께 수명이 짧은 아이를 위한 ‘명다리굿’을 극 전개의 축으로 삼고, 산모의 음식이자 독거도 특산품인 ‘미역’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결생전’은 2021년 9월 초연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 확산으로 취소되면서 관객을 만나지 못했다. 그 대신 국립남도국악원 연주단이 공동어 연습

한 음악 결과물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음원 녹음 및 음반 제작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결생전’을 구성하는 여러 음악 중 열두 곡을 선정하고, 무대 공연용으로 준비했던 기악 편성을 녹음을 위한 악기 편성으로 재편했다. 모든 연주와 노래는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맡았다.

음반은 국내외의 모든 국·공립 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고, 추후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 포털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국립남도국악원은 진도아리랑, 강강술래, 씨감굿, 박종기, 소치 허련 등 8건 소개하지 않은



진도만의 예술자원을 소개하고자 2008년 ‘백구가 부르는 진도아리랑’을 시작으로 10개의 브랜드 작품을 선보여왔다. /전은재 기자 ej6621@

## ‘결의 미학’

이인호 개인전, 18일~4월10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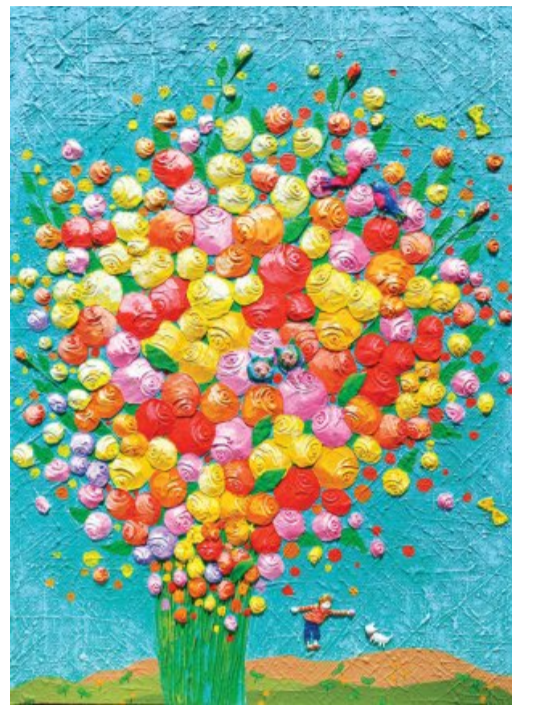
조소를 전공한 이인호 작가의 그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건 입체감이다. 조각의 부조(浮彫) 작품처럼 느껴지는 그림들의 주 소재는 각각각색의 꽃들. 생명의 약동하는 기운을 좀 더 강렬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작가는 필프를 이용해 평면과 입체를 아우르는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이인호 작가 개인전이 오는 18일부터 4월10일까지 광주문예회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지역 작가들과 미술 그룹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되는 공모에 선정돼 마련된 기획이다.

‘결의 미학’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는 안개꽃, 등꽃, 장미꽃 등 다양한 꽃의 형상을 접목한 부조형 회화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이 작가는 평면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 종이와 아크릴 물감을 활용, 여러 겹을 층층이 쌓아 하나가 되도록 겹쳐 작품을 완성한다.

‘기쁨(Pleasure)’, ‘행복(Happiness)’, ‘순수(Purity)’ 등 시리즈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그의 작품들은 파스칼과 정겨움이 묻어난다. 등나무꽃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시작한 ‘행복’ 시리즈는 화사한 꽃과 함께 화면에 등장하는 어린이의 모습 만으로도 미소가 번진다. 유치원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이 작가는 그 시절 마음에 담았던 아이들의 순수함을 화면에 담아냈으며 고양이, 강아지, 새, 나비 등이 어우러져 정겨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happiness’

한국의 전통적 미감을 보여주는 달항아리를 소재로 한 ‘순수(Purity)’ 시리즈 역시 아름다운 꽃이 어우러져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호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이 작가는 지금까지 37회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었으며 광주시미술대전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나 지금 궁서체다’

박지은 개인전, 17일~30일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는 매년 지역 청년 작가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개최, 개인전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7일부터 30일까지 금호갤러리 1관에서 열리는 박지은 작가의 ‘나 지금 궁서체다’는 공모에 선정돼 마련된 전시로 박 작가의 첫번째 개인전이다.

초등학교 시절 한글 서예를 시작해 원광대 서예학과를 졸업하고 학점 이득을 생선을 사사한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행초서 작품 등 다양한 서체의 글씨를 선보인다.

박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정형화된 궁체의 표현양식을 탈피, 감정을 드러내는 거친 필세와 함께 회화적 성격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그의 행초서 작품은 작가의 뿌리를 되돌아보는 작업으로 강한 윤필이 느껴지고 시, 서, 화를 화자에 채워나가며 그림과 시, 그리고 글이 하나가 되는 작품을 선보인다.

법식과 규율에 맞춰 도제식 교육을 받으며 서예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던 작가는 결혼과 출산으로 잠시 붓을 내려놓았지만 이후 서예라는 장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려 부단히 노력해왔다.

전시작 중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아이의 궁용 그림에 직접 동요를 써내려간 작품은



‘궁용시대 송-개비키스’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박 작가는 “서예는 글자의 형태, 글의 내용, 서체의 특징,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 얼마만큼의 수련과 고뇌가 있었는가에 따라 작품의 품격이 달라진다”며 “일기를 쓰듯 매일 써 내려간 글씨들은 마음속 키워져 쌓이고, 자화상의 단편이 되고, 작업 활동의 자양분이 됐다”고 말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김거봉 1집 앨범 ‘Dance Dance Blues’ 발매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거봉블루스’로 활동을 해 온 김거봉씨가 최근 정규 1집 앨범을 발매했다.

김 씨는 광주 인디 음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2010년 블루스 밴드를 만들어 활동한 그는 멤버들이 하나 둘 떠나자 드러머와 돌이서 2014년 거봉 블루스 밴드 EP 앨범 ‘Bluetone’을 발매했다. 이후 2017년부터는 전남대 후원에서 ‘타타살롱 유엔미’를 운영하며 공연을 열었고, 지난 2020년에는 3인조 밴드 ‘거봉악단’을 결성해 포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여 왔다.

그가 이번에 발매한 정규 1집 앨범의 제목은 ‘Dance Dance Blues’다. 지금까지 블루스 음악을 주로 연주해 온 김 씨는 “그동안 많은 발전과 변

화가 있었다. 이번 앨범에는 과감히 블루스를 버리고 자유로운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실험했다”며 “서슴없는 김거봉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의 결과물이다”고 밝혔다.

앨범에는 ‘댄스 댄스 블루스’, ‘기타가 여자 친구라던’, ‘꽃’, ‘나는 누구인가’, ‘팔친 블루스’, ‘쉬련다’, ‘섹시한 자존감’, ‘바보’, ‘두 개의 태양’ 등 15곡이 담겼으며 어쿠스틱 사운드, 드릴 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만날 수 있다.

음원은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도 들을 수 있다. 오는 19일 오후 7시 보헤미안 공연장에서 음반 발매 기념 공연도 열린다. 현장에서는 음반 구매도 가능하다. /전은재 기자 ej6621@